

“퍼스트펍권 최대 50억 지원…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신시장 도전 기업)

금융 다이제스트

KB국민은행

리브로 간편 송금하고 ‘쇼미더머니’ 방청가자

KB국민은행은 다음달 4일까지 ‘리브(Liiv) X 쇼미더머니 777’ 이벤트를 실시한다. 간편뱅킹 앱 리브(Liiv)가 엠넷(Mnet)의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하는 것을 기념한 이벤트다.

이번 이벤트는 리브 가입고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간편송금인 ‘리브머니보내기’로 수취인에 상관없이 7원을 송금하면 자동응모 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응모도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100명)에게는 쇼미더머니777 방청권을 제공하고, 2등(1000명)에게는 현금 7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나 리브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현대해상

장애인고객 전용 창구 개설

현대해상은 장애인 고객의 보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고객 지원팀 12개소에 장애인 고객 전담 창구인 ‘마음 도움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마음 도움 창구’에는 장애인 고객이 방문 시 기다리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응대 매뉴얼을 숙지한 전담 직원이 배치된다. 장애인 고객은 번호표 대신 ‘마음도움 카드’에 본인의 장애 유형과 원하는 업무를 체크해 전담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장애인 고객이 더 편리하고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에 장애인 전용 번호를 도입했다. 청각·언어 장애인 고객을 위한 문자상담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를 통한 수화 상담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김희주 기자 hj89@

씨티은행

소셜벤처 성장 1억 후원

한국씨티은행은 4일 서울시 중구다동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사회연대은행과 ‘소셜벤처 정책연구 후원’ 협약을 맺고, 씨티재단 후원금 1억1000만원(미화 10만달러)을 전달했다.

사회연대은행은 2003년부터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무담보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씨티은행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서 국내 소셜벤처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윤대희 신보 이사장 취임 100일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고용창출·기여 기업에 4조 투입 미래발전위원회·자문단 등 구성 ‘中企 지원의 ‘게임체인저’ 될 것’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은 대기업 중심의 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는 중요한 역할)가 되겠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념 ‘2018년 신용보증기금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여건을 겪고 있는 현장의 중소기업인을 위해 신보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있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어 윤 이사장은 “신보 입장에서는 연대보증 폐지 등 어려운 여건을 맞이했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며 “신보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성실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보는 올 연말까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기조에 맞춰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내년 1월부터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한다. 미래와 혁신, 그리고 시장과 공익을 주요 가치로 두고 기업 혁신 생태계를



윤대희 신보 이사장이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신용보증기금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고용창출·유지 기업에 4조원을 공급하는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점정책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보는 ‘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 내부직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신보 미래발전위원회’와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했다.

특히 이날 윤 이사장은 신보가 직접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이면서 설립한 지 10년 이내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윤 이사장은 “신보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 ‘스케일업(Scale-up)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보가 도입한 스타트업 네스트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으로 ▲유망 스타트업 발굴 ▲엑셀러레이팅(창업 노하우 전수) ▲금융지원 ▲성장지원 등 4단계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8월 말 현재 134개 기업에 총 469억원의 보증을 지원했으며 그중 34개 기업이 131억원의 민간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신보는 스타트업 네스트를 유망 스타트업의 필수코스인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2017년 100개, 2018년 160개 등 총 260개의 기업을 선별해 육성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규모를 대폭 확대해 200개 기

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보는 창업(스타트업)을 넘어 도약(스케일업)이 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담 지원조직인 ‘스타트업지점’도 현재 8개에서 서울 마포와 울산에 한 곳씩 신설해 10개로 확대한다.

미래 신시장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퍼스트펍권 기업’과 4차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4.0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 3년 경과 후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업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새롭게 도입하는 스케일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연구개발과 초기 사업화 단계에 집중돼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비즈니스모델이 안착된 혁신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특성별로 다양한 맞춤형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용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전담지원조직인 ‘스타트업지점’도 마포와 울산 지점을 신설, 8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한편 신보는 올해 보증 총량을 지난해보다 2조5000억원 늘린 45조5000억원으로 운용키로 했다. 새로운 보증은 지역산업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2500억원도 공급할 계획이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회계법인 자회사, 감사법인 컨설팅 금지”

금감원 감사인 독립성 점검 강화

회계법인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감사기업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해도 이해상충으로 법에 위반된다.

또 올해 5월부터 독립성 적용대상 회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감사기업의 자회사에 비감사용역을 해주는 것도 금지다. 금감원은 4일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이해상충 관련이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별도의 컨설팅 법인 B를 만들고, 외부감사업

무를 하고 있는 C 회사에 용역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A회계법인의 대표는 컨설팅법인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컨설팅 용역에는 A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도 참여했다.

금감원은 외관상으로는 컨설팅법인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회계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외부감사 업무와 동시에 특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독립성 적용대상 고객회사의 범위가

늘어나고 금지용역도 추가되면서 더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재무정보 체제 구축 등 용역발주가 많은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회사의 경우 80% 이상이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다.

또 법에서 열거된 금지업무가 아니라도 감사인의 독립성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경우 감사(감사위원회)의 동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관리감리 등을 통해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지난 2일 광주시청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오른쪽)과 신동훈 광주시장이 업무협약 체결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동반성장 협력 MOU

IBK기업은행은 지난 2일 광주시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기업은행에 30억원을 무이자 예탁하고,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기업을 추천한다. 기업은행은 무이자 예탁금을 채원으로 해당 기업에게 저리의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60억원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대출금리 1.25%포인트를 자동 감면받고, 거래여도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4%포인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광주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에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은행, 베트남 디지털뱅킹 강화 | FPT그룹과 IT 파트너십 업무협약 ICT·핀테크 솔루션 개발 협업 등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점에서 베트남 FPT그룹과 디지털 뱅킹 등 금융 IT 부문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FPT 그룹은 1988년에 설립된 베트남 1위 ICT(정보통신) 전문기업으로 현재 FPT소프트웨어, FPT텔레콤 등 8개의 자회사와 임직원 3만2000명 규모로 세계 21개국에서 ICT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상호를 디지털 뱅킹 부문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신한은행은 FPT그룹에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와 선진화된 디지털 뱅킹 시스템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FPT그룹은 ICT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한은행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4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위성호 신한은행장(왼쪽 네번째)과 베트남 FPT그룹 프영 차빈 회장(다섯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FPT그룹은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과 통신, 전자상거래, 뱅킹, 지급결제 분야에서 활발한 협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

업”이라며 “앞으로 FPT그룹과 ICT 및 핀테크 솔루션 개발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디지털 리딩뱅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